

교회 3대 목표

- 1. 천국일군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딤후 4:14)"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신문사 소석관115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충현올림픽 5월개최

전교인이 참여하는 대운동회

각교구별로 청·백팀 나누어 경기

충현교회올림픽 조직위원회(대회장 : 이종윤목사, 조직위원장 : 오진국장로)는 제 2회 「충현올림픽」을 오는 5월 12일(목) 거행될 예정이다.

성도들간의 친목과 교제, 그리고 일체감을 통한 연합정신을 함양하며 복음 운동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 거행되는 「충현올림픽」은 전교인이 참여하는 대운동회이다.

교회산하 14교구가 청·백팀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중 올림픽은 교구별 가장행렬, 예배, 15가지 경기종목들이 진행되고, 선수입장, 시상, 폐회예배 등으로 약 8시간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중·고·대학생 남자로 구성된 기마전을 비롯하여 운반게임, 기차놀이, 백화점 릴레이, 두더지 릴레이, 교역자·장로·무지개 회원들의 「이인삼각릴레이」, 유년부 학생들의 「밤줍기」, 소망부 어른들의 「옛찾아먹기」, 남·여 「줄다리기」 그리고, 축구(남자), 배구(여자), 남녀혼성 「발야구」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질서와 단합성, 협동심을 알아보기 위한 「응원전」도 볼만한 게임으로 삼았다.

효과적인 경기진행과 준비를 위해 각부서별 조직위원이 선정되어 당회의 승인을 얻었다.

조직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명예대회장/김창원목사, ▲대회장/이종윤목사, ▲부대회장/윤종성, 임광식, 김기정, 우기전, 이영세, 이태규, 오태희, 이웅선, 윤명식, 김영개장로, ▲지도/이세열, 김준태, 이원길목사, 김연이, 최명자전도사, ▲조직위원장/오진국장로, ▲조직부위원장/박승준장로, ▲조직위원/오정현, 김원선, 이종국, 강순용, 강모용, 박철훈, 송기홍, 강은원, 김은호, 김재명, 이창호, 마성락, 손경수장로, ▲섭외부/김차생장로, ▲재정부/임광식장로, ▲시설관리부/오정현장로, 유성남집사, ▲홍보부/김광신장로, 이승철집사, ▲채점기록부/차신득장로, ▲시상부/김은호장로, ▲봉사부/김경철장로, ▲의료부/이종석장로, ▲심판위원장/강은원장로.

교역자·장로기도회 3월 14일 충현기도원

본교회 교역자·사무장로 연석기도회가 오는 3월 14일 오후 7시 충현기도원에서 갖는다.

교회의 성숙과 발전, 국가와 민족, 사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며, 앞으로 있을 교회

내 사업 및 행사를 위해 간절한 기도가 있겠다. 장로 기도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충현기도원에서 갖고 있다.

1989년도 상반기 장학생 48명 선발

장학회(회장/이영세장로)는 1989년도 상반기 장학생 48명을 선발, 3월 15일 수요일 2부 예배시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신학원=양창근, 한준기, 윤석산, ■ 일반대학=최운식, 정재용, 홍성민, 김혜영, 이현주, 송준엽, 김광식, 조현정, 이은경, 조석재, 이정은, 김혜연, 최연희, 박은영, 임승진, 박정민, 강은미, 김낙중, ■ 고등학교=박운호, 유지철, 배지은, 이은주, 장수진, 마상찬, 김창성, 신익수, 김훈정, 권오진, 김효진, 김성준, 이영원, 안성태, 강석진, 고준원, 안병오, ■ 중학교=원동찬, 서인해, 김시원, 이승은, 박동석, 박세영, 김성하, 박용호, ■ 해외장학생=이석신, 최희연



▲ 89년 1, 2월에 등록한 충현 새가족 환영회에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카메라 초점

▲ 청년2부가 주최한 애찬주일 행사.

교구별 전도상 실시한다

개인 5명 이상 전도한 자는 1등상 주기로 4월9일 시상식, 구역상·화평상도 마련

교구위원회(위원장 우기전 장로)는 교구별 전도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상 선정 규정은 ① 많은 수의 전도를 기증하여 믿음상(1등), 소망상(2등), 사랑상(3등)을 교구별로 정하되 등외는 차기에 소급하여 적용하고 연말에는 단 1명을 전도한 사람도 시상하기로 했다.

또 5명 이상 전도한 자에게는 숫자에 관계없이 1등상(믿음)을 주기로 했으며, ② 피전도자의 계속 출석여부를 확인한 뒤 시상계수에 포함시키되 반드시 그 명단이 인도자와 함께 주보나, 「주간충현」에 기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인도자 없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출석 교인은 소속구역 전도자 계수에 포함되고, ④ 개인 및 구역전도상 대상 선정은 해당 교구 협의회에서 결정하되, ⑤ 한 사람을 두 사람이 협력하여 전도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

을 다 인정키로 하였으며, ⑥ 개인상은 3개월마다 4회, 구역상은 6개월마다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4월 9일(주일 저녁예배시) 첫번째로 시상식을 갖기로 했으며, 시상명칭을 확정했다.

- ▲개인상=1등(믿음상), 2등(소망상), 3등(사랑상), ▲구역상=1등(충성상), 2등(순종상), 3등(인내상), ▲화평상=연말에 가장 많은 전도자나 구역에 격려의 뜻으로 시상한다.

권사회 조직

당회산하 단체로 권사회를 조직키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위촉했다.

교회발전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권사회」는 교회 각기관의

기도의 씨앗이 되어 기도하는데 앞장 서기로 했다.

김주아 여전도사 초빙 제2교구에서 사역



당회는 그동안 공적중이던 제 2교구에서 사역할 여전도사로 김주아씨를 초빙했다. 김전도사는 서울

출신으로 이화여대 문리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수학하고 서울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했다.

김전도사는 오는 3월 20일 부임케 된다.

지상강단

원로목사 김창인

우리 교회가 서울에 세워진 지 36년을 맞은 오늘까지 부흥과 새로운 도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여 세계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빌립보 교회의 부흥요인을 살펴 보면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I. 빌립보교회는 복음에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빌 1:5)

둘째, 믿는 사람끼리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한 식구가 아니고 남남끼리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시민이 되었으니 이 땅 위에서도 정당한 교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간에는 욕심을 떠난 깨끗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하며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고 피곤할 때에 권면하고, 몸에 병들었을 때에 염려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고 선한 일을 진행할 때에는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혹이나 탈선한 교인이 생기면 지혜롭게 권면해 주면서 신앙

과 효도로서 자식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탈선되지 아니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의 꽃이 피고 자손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셋째, 불신자와의 교제입니다.

신자는 불신자에 대하여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쓰러진 자에게 위로자가 되면서 성경의 교훈대로 대인관계를 바로 맺어야 됩니다.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증거하는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II. 빌립보교회는 성령님이 동사하는



니다. 빌립보교회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 믿기 시작하여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책임을 감당하여 바울사도가 세계선교를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교비를

계속하여 은혜받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네가지 교제를 바로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구주요 나는 죄인,
하나님은 임금이시고 나는 백성,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키우시는 양이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알아서 바로 교제하게 될 때에 개인의 심령은 부흥되고 이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은혜 안에서 부흥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교만이 없어지고 겸손해지며, 원망이 없고 감사가 뜨거워지며, 내 죄를 숨기는 거짓말이 없어지고 정직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대인관계 바로해야 가정과 교회, 민족과 후손위한 기도를

생활을 바로 인도하는 신자끼리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여 교회가 목장으로서, 학교로서, 병원으로서, 훈련소로서, 천국의 출장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과의 교제입니다.

신자의 가정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위로할 책임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복음 안에서 정당하게 교제하여 복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되 때를 지 아니한 돈으로 양육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명령에 순종하며 존경

교회였습니다.(빌 1:6)

성령님은 혼들어 깨우는 감동과 깨어난 자의 죄를 회개할 것으로부터 올바르게 살기를 결심하고 충성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인격 속에 깊이 명령하시는 감화를 통하여 헌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혼들어 깨우는 감동이 왔을 때에 일어나야 하고 일어난 다음에는 가라고 인도하시는 지시에 따라 가야 하며 깊이 감화하실 때에 헌신하면 개인의 심령이 승리하고 발걸음에 성령이 옮니다. 이리하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계속하여 부흥발전하게 됩니다.

III. 빌립보교회는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보내어 복음사역에 협력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일군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라는 목표를 세웠으니 시작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협력하여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일군이 일하면 주인이 사랑하고 일군이 성공하면 수많은 사람이 칭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날을 내다볼 때에 우리는 개인주의에 사로잡힐 때가 아닙니다. 사치할 때가 아닙니다. 안일을 벗어버리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후손을 위한 기도의 차원을 높이며 빌립보교회처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를 따라 복음으로 교제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식당 질서잡는다

42개 여전도회 위생적으로 안내 봉사



▲ 교회식당 직원들이 교회식당 질서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본교회 여전도회에서는 교회식당 질서와 위생 및 청결사항을 담당하고 지난주부터 직접 안내를 맡고 있다.

매주일 약 3천5백여 명의 교인들이 식사하는 교회식당은 그동안 식사질서와 위생상태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이번에 기획실 위원 전원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봉사와 질

서, 위생에 만전을 기하는데 앞장서기로 한

대학생·청년위한 휴게실 설치

성수주일을 생활의 선조로 삼고 신앙훈련을 받고 있는 대학생, 청년들의 신앙생활 지도를 바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게실」을 설치하기로 당회가 결의했다.

동 휴게실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

것을 필두로 여전도회 각지회가 매주 봉사기로 했다.

식사 좌석배치도 효율적으로 배열해서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며, 특별히 수저를 위생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 국물을 손수 적당량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국물조리기 등이 3군데 설치되었고, 남은 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설치가 기구 등이 별도로 설치되었다.

성도의 헌금으로 무료배식되는 교회식당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봉사하는 교사, 찬양대원, 구역일군 등이 부담없이 이용토록 했다.

새가족 환영회 성황 새신자 5백여명 참석

충현 새가족 환영회가 지난 3월 5일 오후 2시 30분 달나 식당(전교관제하)에서 개최되었다.

1, 2월에 등록된 새가족 5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순서는 이양우목사 사회로 진행, 흥해작전 비디오회를 관람시키고, 이종윤위임목사의 환영의 말씀, 극작가 나연숙집사의 특별신앙강증이 있었다.

N.M.C. 노래선교단의 특송이 있은후 새가족 소개, 교역자, 장로 소개, 이종윤목사의 축도로 은혜롭게 마쳤다.

찬양대 각부 부대장 임명

예배위원회(위원장 김기정장로)는 찬양대 활성화를 위해 각부별로 부대장을 임명토록 당회에 청원했는데 2월 정기당회에서 이를 승인했다.

임명된 각부 부대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① 가브리엘 찬양대/임창식집사, ② 임마누엘 찬양대/미정, ③ 할렐루야 찬양대/이정우집사, ④ 아멘 찬양대/전홍렬집사, ⑤ 실로암 찬양대/나희주, 이명재(B)집사, ⑥ 시온 찬양대/김상규집사.

● 구호금 영수증 사본 보내와

지난 88년 12월 7일 소련의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이재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우리, 충현교회가 2천여 만원의 성금을 보낸바 있었는데, 이 성금은 무너진 장애인 숙소전원 기금으로 사용했다는 감사의 서신이 오게 된 것이다.

미래 세계의 지도자 초청 전도대회

강남의 고등학생 6천명 한 자리에 회집

고등부주관 4월9일(주일) 오후3시30분 본당서

교육위원회 산하 고등부(부장: 최무길장로)는 오는 4월9일(주일) 오후3시30분 본당에서 미래 세계의 지도자가 될 고등학생 초청전도대회를 개최한다.

6천명의 남·여 고등학생을 초청하는 동행사는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눅 14:3)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사 50명, 학생 460명, 그리고 면려회 임원 20명이 총력전도를 모색케 된다.

전도대상으로 본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의 자녀(고등학생)들을 비롯하여 등록후 낙심자, 같은 또래의 친구들, 이웃에 살고있는 학생, 부모님 친구의 자녀들, 친척들의 자녀들, 그리고 충현교회를 중심으로 주변 고등학교(8학군, 9학군 약 20여개 학교)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초청케 된다.

이 일을 위해 기획국을 비롯한 훈련국, 전도국, 홍보국, 사무국 등으로 조직이 완료되었고, 날짜별 일정표가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다.

T.V 탤런트 강석우, 최수지(예장)씨의 신앙간증, 핸드벨과이어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고등부 심얼봉팀, 박종윤선생이 인도하는 뮤직시스템이 동원되고 전승훈선생의 게임과 율동 등으로 다양스럽게 순서가 진행되고, 이종윤위임목사 특별메시지가 있게된다.

위하여 온 교우들의 기도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충현유치원 입학예배 원아92명 등록받아

충현유치원(원장 이종윤목사)은 89학년도 입학예배를 지난 3월7일(화) 오전11시 소석

관 205호실에서 드렸다.

원감 한영숙권사 사회로 진행된 입학예배에서는 최명자전도사의 기도, 교육위원회지도 윤용규목사의 말씀이 있었다.

이번 입학식에는 사슴반 51명, 토끼반 41명, 개 92명이 입학했다.

어려운 9개 교회 지원 전도위원회 3월부터

전도위원회(위원장 윤종성장로)는 89년도 지원교회 9개 교회를 선정하고, 매월 5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선임된 9개 지원교회와 지원처는 다음과

같다.

① 월림교회(최대남목사 시무) 충북 제원군 금성면 월림리 2구(한나 1지회), ② 라배도교회(김정영전도사) 전남 진도군 조도면 라배도리(한나 2지회), ③ 송풍교회(반석창목사)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한나 9지회) ④ 삼부교회(곽봉섭전도사)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저동(한나 10지회), ⑤ 상화교회(윤유선전도사) 전남 여천군 화정면 상화리 135-1(에스터 7지회), ⑥ 조발교회(이영봉전도사) 전남 여천군 화정면 조발리(에스터 10지회), ⑦ 육도교회(김진태전도사) 충남 보령군 오천면 효자리 육도(마리아 1지회) ⑧ 죽도교회(배강호전도사) 전북 고창군 부안면 봉

암리 내죽도(마리아 7지회), ⑨ 연흥교회(허길량전도사)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건리 808(마리아 11지회).

도서선정 자문위 구성 실장에 김원선장로

교육위원회 산하 충현도서관은 도서선정 자문위원을 임명했다.

△실장/김원선장로, △지도/김영구목사, △총무/조선근장로, △자문위원/김광석목사, 김해규목사, 송태근목사, 마일수목사, 손경수장로, 한용관, 김성식전도사.

본당지하 · 소석관 · 선교관 도장

훼손된 곳 보수공사, 환경미화 협력요청

행정위원회(위원장 이태규장로)는 교회 본당 지하층을 비롯하여 소석관(교육관), 선교관의 내부공사를 착수했다.

새롭게 보수될 곳은 1층부터 7층까지의 도장공사, 선교관1층부터 5층까지의 내부도장, 지하식당 1, 2층 도장공사, 그리고 본당 지하

1층 도장공사도 병행키로 했다.

또 본관 지하 1층에 간이 칸막이 시설을, 공조기 코일 교체, 지하주차장 1, 2층 우레탄 포장공사, 624개의 목재 장의자 도장공사, 갈릴리홀 카펫공사 등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교인들은 공사근처에 접근

하지 않기를 바라고, 특히 소석관을 사용하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선생들은 도장공사 이후 깨끗하게 사용하므로 환경미화에 협력해 줄것을 요청했다.

충현 법조인 선교회 회장에 김광삼집사

지난 3월5일 창립총회를 가졌던 충현법조인 선교회는 초대 회장에 김광삼집사(변호사)를 선출하는 한편, 자체 성경공부와 친교활동, 그리고 사무실이 마련되는 대로 성도들을 위한 법률상담을 담당키로 했다.

회장 김광삼집사(변호사), 부회장 김광식집사(변호사), 김정겸집사(사법서사), 총무 김상철집사(변호사), 이찬욱선생(국제변호사), 감사 최정식집사(변호사)



▲ 충현 법조인 선교회 창립총회 모습

성경공부에 앞장을!

성경연구원 1학기 등록인원 493명

성경연구원은 89년도 제1학기에 등록된 학생이 교사양성부 103명, 찬양대원 57명 그리고 주간성경공부에 3월8일 현재 3백33명, 합계 493명으로 집계되었다.

담당과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야담반(창세기 이종윤목사, ▲예레미야애가(김동열목사), ▲로마서(김장근목사), ▲마가복음(김학진목사), ▲하박국(김준태목사), ▲크로소웨이 1권(이종윤전도사), ▲크로소웨이 2권(김경성전도사).

위탁교회 보조

김동삼장로가 매월

제25대 장로인 김동삼 사무장로가 월 10만원씩 두 교회를 돕기로함에 따라 전도위원

회는 위탁교회로 지정하고, 그 뜻을 받기로 했다.

① 도곡중앙교회(배재윤목사)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② 정산교회(장재윤목사) 경기 여주군 대신면 보통1리.

환경미화 연구위 구성

교회는 석조예배당, 선교관 및 소석관의 내부장식을 비롯하여 주변환경 미화를 위해 교회환경미화 연구위원회를 시한적으로 구성키로 하고 위원회를 조직했다.

▲소집책임자/김광선장로, ▲미술담당/이병학장로, ▲조각담당/윤유진장로, ▲음향담당/오정수장로, ▲음악담당/최시원음악감독, ▲디자인담당/정연현집사, ▲설계담당/최동규집사.

나의 제언

남전도회에 관심을!

김여순(안수집사 남전도회회장)

복음사역에 주도를 이루어야할 남전도회 발전을 위해 조직이 개편된 후에 어떻게 각 지회가 운영되어 가는지 짧은 제언을 통해 임청나게 달라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서 상회에 건의하고 싶다.

지난해까지 3개 남전도회였던 것이 28개 남전도회로 거의 10배가 증가되었고, 남전도회를 운영해 가던 조직체가 장로 중심체제에서 집사 중심체제로 바뀌었으며, 전도회별로 연령이 세분화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남전도회 발전을 위해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변화가 크면 클수록 관심도 비례해 가야할 것이며 이런 현실에서 남전도회 각 지회운영을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남전

도회 28개 지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람되고 값진 사명을 받고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열심히 가지고 안되는 문제점이 우리의 결심을 약하게 만들 때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위해서는 역시 상회에서 운영에 대한 계도와 우리 지회의 요구에 대한 수용의 관심 있는 대응관계가 이루어져 가야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먼저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갈 것이지만 89년도 충현교회 조직체 중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이 달라진 남전도회 각 지회 발전을 위해 온 성도의 협력과 특별히 상회에서 관심을 갖고 협력을 바란다.

교회기관소개②

교육위원회

우리 교회의 3대목표 중 첫번째가 「천국일군 양성」이다.

교회설립 10주년 기념일에 원로목사 김창인목사의 제의로 시작된 천국일군양성은 오늘까지 26년간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목회자, 신학자, 해외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각분야별로 전문성 교회일군들이 배출되어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면서 복음화 대열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일군 양성을 위해 실무적 일을 돕고 있는 교육위원회(위원장 오태희장로)가 89년도 교육목표, 조직 사업계획, 행사 등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금년도 큼직한 사업계획에 의하면 교회학교가 24개 부서로 확장되어 운영되고 있고, 교재편찬을 위한 교회교육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성경연구원을 통한 주간성경 공부와 요일별로 강의가 있게 되고 한국교회 성장연구원과, 충현제자훈련 등이 교육위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좀더 세밀하게 소개한다면 교회학교가 제 7분파로 나뉘어 있고, 특수교육부, 도서실, 장학회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만 2.5세의 영아부로부터 시작하여 70세 이상의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는 20부, 특수교육부로는 탁아부, 장애자 조기교실, 살롬 경로대학, 충현유치원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교육기관에서 약 9백명의 교사가 약 7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헌신적 교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우리교회의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을 정립하고, 이에따른 교회학교 각부의 교재를

다 개강되어 현재 초교과적으로 1천27명이 제1학기 등록을 마치고 강의에 임하고 있다.

89년 교육목표를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로 삼은 교육위원회는 이런 굵직한 사업 이외에도 경로잔치, 계절학교(여름, 겨울) 각부별 초청 전도집회 등의 행사를 돕고 있다.

교육위원장 오태희장로는 「금년에는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출석 목표와 질적 교육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피력하면서 「교육위원회가 집행하고 있는 방대한 사업과 행사에 적극적인 기도협력을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89년도 교육위원회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원장/오태희장로, ▲지도/윤용규목사, ▲부위원장/김차생장로, ▲서기/박승준장로, ▲회계/김재명장로, ▲도서실장/김원선장로, ▲장학회장/이영세장로, ▲특수교육부장/이상현장로, ▲교육위원/윤용규목사, 오태희, 김차생, 박승준, 김재명, 이상현, 이영세, 조인제, 김원선, 정광호, 노문환, 엄필성, 손경수, 박영식, 이종석장로, ▲영아부장/차신득

교회학교 24개 부서로 확장, 특수교육부도 교재편찬위한 교회교육연구 위 구성

편찬하기 위해 국내 기독교 교육에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교수 및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교육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각 나라별 교재를 수집, 분석하는 일과 자료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현재 위원으로는 이영덕, 오인택, 주선애, 정규남교수와 이종윤목사를 비롯한 본교회 교육팀인 윤용규, 김영규, 김성윤목사 등이 이 일에 직접적으로 돕고 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연구원은 교사양성부(3월~6월), 찬양대 양성부(3월~6월), 주간 성경공부(3월~6월), 부부교양대학(5월)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이 진행하는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매주 월요일마

장로, 유치부장/정광호장로, 유년부장/윤성철장로, 초등부장/최성현장로, 소년부장/노문화장로, 중등부장/엄필성장로, 고등부장/최무길장로, 대학부장/이훈장로, 청년1부장/윤광일장로, 청년2부장/손경수장로, 장년1부장/김재명장로, 장년2부장/윤인현장로, 장년3부장/마성탁장로, 소망부장/강모용장로, 직장, 전도교육부장/박영식장로, 새가정부장/박승준장로, 새신자부장/강순용장로, 세례부장/이창호장로, 사랑부장/이종석장로, 예배다부장/박인세장로, 탁아부장/정운석장로, 장애자조기교실/이상현장로, 살롬경로대학/학감 송기홍장로, 충현유치원/학감 한영숙권사.

없는 노파의 심정, 경험없는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황소는 황소의 힘, 개미는 개미의 힘, 쇠 선반하면 된다”하시던 원로목사님의 교훈으로 힘을 얻어 소망 중에 텔레비전과 동아일보에서 ‘생명의 전화’ 노인들 집보기실시를 보고 시작하니 시간당 500원,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 남편 눈 속여 죄지으러 가는 주부집, 가슴아파 울고, 옆에 세운 아가씨 전도해서 등록시키고, 선교사의 기쁨도 동참하며 마루에 깔렸던 카펫을 빨라기에 비눗물에 발로 비벼 빨기는 했는데 무거워서 널 수가 없기에 전화로 집의 할아버지를 호출하여 돌아서 너네 너무 힘이 들어 성전의 돌들 옮기는 생각을 하니 좀 가벼워지면서 살아있는 한 두마리의 개미된 것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시 사용하는 거-제나 안대 등 접는 일, 눈이 아프고 허리 아파도 올림씩 때 세계복음화대회 할 새성전 짓는데 새로잡혀서 시간 흐르는줄 모르고 만원 한장만 되어도 적지만 나는 개미이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건축 헌금으로 낼 수 있었지요. 그도 년수가 흐르니 기백만원이 될 수 있었답니다.

“울며 뿌린 씨 웃으면서 거둔다”는 말씀, 실낱같은 믿음으로 김불같이 주위모아 돌에 배당에 돌 한 장 보탬이 되었다면 충현의 예배당은 그대 사랑스러울뿐만 아니라 꿈에도 그리운 천국의 모델이라 생각되며 황금 보석 깔린 내 아버지 집에 내 영혼이 들어간 착각에 감격은 말로나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윗왕이 법궤와 함께 돌아올 때 옷이 벗어지는 줄 몰랐으며 누가 옆에서 비웃어도 개의치 않은 일이나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무아지경에 있었던 황홀함을 순간, 느끼면서 다시 정신차려 강단 위를 바라보니 영광이 자욱한 안개 속에 목사님들은 나 위하여 피흘리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황홀한 전경의 밤이었으니 천국의 지소임은 확실하고 내일의 천국백성될 약속의 권속들임도 믿어졌습니다.

이 돌성전을 통하여 사랑의 복음이 전세계로 확산될 것도 또한 믿어봅니다.

✻ 독자의 글 ✻

개미의 힘

백도풍권사



할렐루야!

기다리고 바라던 현당의 날은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현당의 날을 충현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주시어 너무 좋았습니다. 흥해작전, 여리고작전 모두 모두가 이 현당을 위해 우리 마음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마당에 돌들은 널려 있고 충현의 새성전은 아시바 속에 묻혀 있는 채 말없이 비단과 멀리서와 시가, 절투의 포위를 당한 몇몇 해의 세월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지워졌습니다. 현당 감사부흥회라지만 ‘오억 부족’이란 믿음이 적은 가슴에 물결했던 채증도 시원히 내려앉고 빛 한판 없이 현당식에 참여해서 생명의 떡을 나누고, 마당에서는 쌀떡잔

치, 생차파티로 예수님시대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임의 대열에 서있는듯 어찌다 충현

교인된 것이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건축헌금을 하고싶어도 바치기도, 힘도

평신도선교사 전미령



△전미령 평신도 선교사가 케냐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다. 마사이부족 대상 진료 치유받고와서 하나님께 감사

1년 9개월동안 동부아프리카의 케냐에 평신도 의료선교사로 파송된 전 미령선교사가 일시 귀국했다.

「마사이」부족을 대상으로 간호사역과 간접 말씀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전 선교사는 케냐 한국복음주의 협의회에 소속된 회원들과 함께 팀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국내에서 상도동에 위치한 제일병원의 간호원으로 근무했던 전선교사는 주님의 명령따라 언어와 습관, 기후, 문화가 다른 이방지대 케냐에서 질병과 문화해탈을 받지 못한 검은피부의 인종들에게 건강에방교육과

미니인터뷰

마사이부족에게 의료전도

1차 보건진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달과 기도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며 복음확산에 진력하고 있다.

75개의 방언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케냐에서 스할리어와 영어로(케냐 공용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 선교사는 매주일 부락과 마을을 순회하며 예배를 드리고 진료 시작 전에는 통역을 통해 예수믿기를 다짐하는 약속도 받는다.

우리교회 선교회 및 1부성가대원, 그리고 한마음후원회의 기도후원을 받고 사역에 헌신한 전 선교사는 심한 기후차(낮엔 무척 덥고, 밤엔 무척 춥다)로 인한 피로 때문에 건강체크를 위해 귀국케 된 것이다.

지리적 조건이 너무 나빠 마을순회 진료에 차량운전이 무척 힘들고, 텐트생활과 밤이면 짐승까지 나타나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별 탈없이 감당했음을 감사한다고 했다.

현지인들이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소꿉친 친구처럼 가져오는 성의와,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들의 순수한 인정에 피곤과 피로가 한순간에 회복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주님덕분에 부족한 종이지만 일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전 선교사는 충현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일시 채류기간 동안 치료비 일체(건강체크)를 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위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